



2대리구 압량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4월 13일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7주일 2022. 02. 20. (다해) 제2309호

제1독서 1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2독서**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27-38 **영성체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원수 사랑 - 그리스도인의 징표



청도본당 주임 | 황하철 안드레아 신부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씩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루카 6, 27. 35)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내 뺨을 때리는 사람, 내 겹옷을 가져가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명은 명으로 갚아야 한다.”(탈출 21,24-25)는 옛 세상의 법이 그렇고 그런 세상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은밀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제1독서는 원수 앞에서 갈등하는 다윗 일행의 모습을 전하고, 제2독서는 우리가 흠으로 된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임을 전하며, 망각하고 있었던 희망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 — 특별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루카 6,27) — 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군중처럼 당신 주변에 머물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고 욕망을 거슬러야 가능한 것으로, 새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바라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느님을 닮으려는 이들에게

는 가능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보여 주려는 이들에게는 가능한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천주교인들은 세상과 달라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들에게 해 주는 것’(루카 6, 31 참조)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루카 6, 35 참조)고 하시며, 그로 인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루카 6, 35)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루카 1, 32)이라는 예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하지 맙시다. 단죄하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굶시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느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며, 벌써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징표가 됩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루카 6, 38)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넴 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수넴 여인은 부유했고 개방적이었다.(2열왕 4, 8 참조) 음식을 청하는 엘리사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유인즉, 엘리사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수넴 여인은 생각했기 때문이다.(2열왕 4, 9 참조) 엘리사를 향한 여인의 지극정성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품고 있다. 여인은 그것으로 되었다.

문제는 엘리사에게 있었다. 굳이 여인의 부족함을 찾으려 한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소?”(2열왕 4, 13) 받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럿 있다. 다만, 굳이 돌려주어야 받은 것에 보답했다는 논리는 일방의 정성을 쌍방의 교환으로 타락시킨다. 여인의 답은 명확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2열왕 4, 13) 부족하나 이것이 제 삶이고, 그것으로 저는 잘 지냅니다로 읽힌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은 기쁜 선물이고 축복이겠으나 여인의 반응과 응답은 이야기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다. 아들의 탄생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그려내는 구약 성경의 관행과 거리가 있다. 이야기는 참 담백하게 쓰였으나 참으로 차갑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차가움의 감각은 아들이 죽는 장면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아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을 대하는 수넴 여인의 차가움에 호홉마져 맞는 느낌이다. 죽은 아들을 조용히 ‘하느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인다.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조차 알리지 않는다. 다만,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고자 했다. 가는 길에서 멈추지 말아야 했고, 곧장 가자고 종을 다그친다. 엘리사의 종 게하지의 안부 인사에 여인은 놀랍게도 ‘평안하다’고 답한다. 그리고 다만 엘리사의 두 발을 붙잡고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없을 때도 바라지 않았고, 아들을 얻고 죽었어도 바라지 않았다.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집요하게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으나 제 맘속의 그 어떤 부족함이나 간절함조차 내뱉지 않는 저 무서운 힘의 근원은.

부족함에 울고 부족함에 짓눌려 늘 배고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수넴 여인은 무욕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잘 지내고 있다, 평안하다는 결코 잘 지내지도 평안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의 무서운 말들이다. 아들이 없는 결핍에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았고 아들을 잃는 슬픔에 짓눌려 무너지지도 않았다. 수넴 여인의 무욕은 도인의 비움이 아니라 삶의 격정적 사건들을 차갑게 대할 줄 아는 뜨거운 간절함이 아닐까. 하느님을 믿는다고 호들갑 떨거나, 하느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저 혼자만의 감동에 휩싸이거나,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제 인생을 찢어 놓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지극 정성이었고, 엘리사에게 간절했다. 엘리사는 아들을 살렸고 수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2열왕 4, 37 참조) 삶이 간절하고 그로 인해 뜨거울수록, 삶에 대한 우리의 호홉 사이에 차가운 바람 하나 흘러도 좋을듯하다. 너무 뜨거우면 삶이 재가 되고 마니까.... **필문**

말씀 따라 잡기

원죄 이야기 창세 3,1-24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투스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 김유정 알마 수녀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적 조건을 통찰하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는 첫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낙원이 되는 세상의 삶을 주셨고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초대 받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느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창조하는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하여 하느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피하고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고달픈 노동, 출산의 고통,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짓눌리게 되었고 하느님과 생명의 친교를 누리던 낙원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원죄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가장 자애로운 방식으로 대응해 주시고 인간의 죄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창조와 구원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의 믿음을 저버리긴 하였지만 악의 세력을 쳐부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원복음(原福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와 인간의 운명, 그리고 승리의 약속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복음'이 됩니다. **✠**

말씀 맞히기 Q & A

1. 하느님께서 원죄로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원복음'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2.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느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나요?
3. 하느님께서 에덴동산 한가운데 두신 두 개의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무슨 나무입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2월 25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2월 27일 연중 제8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오반지(吳盤池) 바오로는 충청도 진천의 반지(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 공부와는 담을 쌓았으며, 혼인한 뒤에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려 버리고 말았다.

바오로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된 것은 40세가 훨씬 지난 1857~1858년 무렵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진천의 지장골(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체념으로 가난을 참아 견디었으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나갔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청주 병영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지장골로 들이닥쳤다. 이내 그는 한 젊은 이와 함께 체포되어 진천에 투옥되었다가 청주로 이송되었다.

청주 병영으로 압송된 오반지 바오로는 모진 형벌과 문초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조금도 누설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한번은 형벌을 받고 옥으로 끌려갈 때, 형리들이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솟아나자, 바오로는 대뜸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좋소. 하지만 관장의 명령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때리는 거요.”라고 항의하였다.

당시 옥에는 바오로와 함께 체포된 젊은이,

그리고 새로 체포되어 온 배 바오로라는 교우가 있었다. 관장은 이들 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므로 ‘배교한다’는 한 마디만을 얻어내려고 갖가지로 유혹하였지만, 바오로는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은 관장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바오로가 옥중에 있을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교우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빛을 갚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일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도록 하여라.”

관장은 어떠한 형벌과 유혹으로도 바오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이때 바오로는 “만 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신앙을 증명한 뒤, 청주 남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런 다음 사형 집행을 관장하는 관리가 마지막으로 배교를 유도하기 위해 종이를 갖다 주자, 그는 끝까지 “배교한다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바오로의 옆에 있던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달려들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이처럼 바오로가 순교한 날은 1866년 3월 27일(음력 2월 11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그가 순교한 뒤 백일 청천에 무지개가 떴서 그의 시체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고 한다. 이후 그의 시신은 아들과 신자들 몇 명에 의해 지장골로 옮겨져 그 인근에 안장되었다.



오반지 바오로
(1813-1866년)

47. 혼인의 사랑 ⑩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부부의 성적 욕구는 경시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욕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몸의 신학에 관한 교리교육에서 성적 차이가 있는 육체는 “풍요와 출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전한 성적 욕구는 비록 쾌락의 추구와 결부되어 있지만, 언제나 경외의 마음을 전제로 하기에, 그러한 충동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애적 차원은 다른 이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승화된 열정이기에, 이는 “사랑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동의”가 됩니다. (『사랑의 기쁨』 150-152항)



공동의 집, 지구

신청: 2.13.(일) ~ 22.(화)

주제: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Ⅱ -

가격: 1,500원 / 신청방법: 각 본당 별 신청(본당 사무실 문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사순시기부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담아 제작된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Ⅱ**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 나누기(옷, 양말, 운동기구, 가구, 장난감 등)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8호 정답

1. 도성, 도성, 과부, 죄악, 고통 2. 화살 과녁, 내장, 주님, 희망, 성찰, 반성 3. 바룩, 바빌론
4. 거짓 신(이민족들의 신),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를

박성규 엘리지오



나만이 아닌 그를 위해...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2월 21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2월 22일(화) 19:30 다사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21일(월) 11:00 계산성당		2월 23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21일(월) 11:00 죽도성당		2월 23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2월 26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	-

대리구

2022년 제3대리구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

기간: 3.16(수)~(13주간) / 마감: 3.2(수)
 대곡성당(수) 19:30 : 서간, 묵시록
 월성성당(목) 14:30 : 서간, 묵시록
 이곡성당(목) 14:30 : 요한복음서반
 수강료: 7만원 / 문의: (053)641-5678

성소 |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구역반장
 날짜: 3.26~28 / 3.30~4.1 / 4.4~6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농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3.13(일), 3.20(일), 3.27(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모세오경 통독

일시: 3.3(매주 목 19:30), 온오프 병행
 대상: 청년 / 문의: (010)9861-6691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3월 개강)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구약성경 아카데미, 가톨릭 신앙과 영성
 영신수련 정기강좌: 영신수련과 성서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년도 추가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기간: 2.22(화)~27(일)

문의: (043)270-0100~010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월~12월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주소: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 (요셉)

☎ (053) 431-3377

대구 2, 3호선 청라연덕역(성모당) 9번 출구
 역삼빌딩 3층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서만수 에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BEAU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루카)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터빌딩 8층

진료문의: 216-7345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전기누전
 배관막힘, 지붕공사, 방수
 페인트, 타일, 샷시, 목작업

정상진(그라시아노)

010-3526-7401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및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배가록(가롤로) 신부
1948년 2월 23일
- 김승연(아우구스티노) 신부
1945년 2월 26일

† 장명훈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2월 21일(월)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기일: 2월 21일(월)

마감: 3.7(월) / 회비: 1만원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3114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회원피정)

일시: 2.21(월) 10: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강사: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님
제목: 삶과 신앙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2.24(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교육 | 모집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예언서, 요한계시록, 신론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3.2(수) / 문의: 660-5105

33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3.21(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교구 운전기사사도회 회원 모집

자격: 개인택시(교구에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 / 예비자 포함)
특전: 수 / 토 / 일 부제 적용

문의: 회장, (010)9116-2587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7차: 3.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센텔 성서 모임 수강자 모집

개강: 3.7(월) 10:00 모세오경
3.8(화) 10:00 역사서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대명동)
문의: (010)5726-1733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 19:30
신약(수) 10:00, 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심화반: 시편(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밥이 되어 주세요' 밥밴드 멤버 모집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이 되어줄
실력 있는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드럼
문의: (010)3810-5599 / (010)9577-7819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행사 | 모임

2022학년도 예비 신학생 등록

기간: 2.6(일)~20(일)까지
대상: 중1~고3대학일반 / 등록비: 2만원
문의: 본당사무실(매년 갱신 필수, 입시반은 1년간 개근해야만 대신학교 지원 가능)
개학 미사: 3.13(일) 14:00 신학교 대성당

3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3.20(일) 9:30~13:30
장소: 교구청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3.10(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임산부 축복 교실

일시: 3.17~31(매주 목, 3주)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임산부 / 선착순 20명

글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더스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분 출구)

곽재혁신경과
DR. KWAK JAEHYUK, M.D.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명티노)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분 출구 척막병원 4층

그루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심판
토지보상, 민원대행

010-3534-1371

대표 이경배 (요셉)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아오스팀),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경일신경과·내과

전문: 신경과 7인/내과 5인/영상의 1인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분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방역소독(24시간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 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로(비비안나) 신원철(바오로)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의 서계신(베드로) · 장주현(비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용로 142 (아미르 집앞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